

유다의 정치와 종교의 역사는 종종 개혁을 시도하였다. 스바냐의 힘있는 예언은 아마도 요시아 통치기간에 개혁의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외적으로는 크게 변화를 가져왔으나 부패한 내적 마음의 상태를 새롭게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스바냐는 죄의 악함 때문에 주의 날, 심판의 날이 오고 있음을 선포하였다.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들은 곧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진노의 심판이 완료되면 축복이 찬양과 노래의 원인이 되실 메시아의 인격으로 올 것을 기대한다.

## I. 제목

소선지서 가운데 아홉번째 책이다. 스바냐(Tsephan-yah)는 야웨가 숨으신다 혹은 야웨는 숨겨지셨다는 뜻이다. 스바냐는 므낫세왕의 통치 후기에 출생하였다. 그의 이름은 아마도 므낫세의 잔악한 행사로부터 감추어졌다는 의미일 것이다. 헬라와 라틴 명칭은 모두 소포니아스(Sophonias)이다.

## II. 저자와 기록 연대

### 1) 저자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며 구시의 아들이다. 여기서 히스기야는 분명히 왕 히스기야일 것이다. 요시아 시대에 활동한 그는 왕과는 속질 관계일 것이다. 스바냐는 왕족의 혈통에서 나온 유일한 선지자일 것이다. 요시아가 행한 모든 개혁은 스바냐의 영향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 2) 기록 연대

본서는 요시아의 통치기간 추방되기전 늦은 시기로(참고, 1:1) 주전 622년의 부흥 전에 썼을 것이다 (왕하 22-23 장). 이스라엘의 북왕국은 이미 주전 722년에 포로되어 갔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습 2:9; 3:13-15)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키지 않는다. 차라리 이런 언급은 이스라엘 국가의 남은 자에 대한 것으로 적은 유대와 그 수도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요시아는 개혁하는 왕이어서 그의 종조부 히스기야왕 시대(왕하 21:1-26)이래 사용할 수 없게 되었던 바른 예배의 시행을 시도하였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직도 정죄된 이교적인 예배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습 1:8-9). 어찌 되었던 종교개혁 이후까지도 모든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었다. 이 사실은 아무리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의 외침에도 반응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항상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전인 주전 630년 경에 쓰였을 것이다.

### 3) 수신자: 스바냐의 메시지는 므낫세와 아몬왕의 악한 통치의 영향으로 도덕과 종교적 관심이 시들어진 유다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다(참고, 3:1-7).

## III. 스바냐서의 기본 구성

본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 여호와 날에 있을 심판 (1:1-3:8) 과 2) 여호와와 날에 있을 구원 (3:9-3:20) 로 나눌 수 있다. 먼저 1) 여호와 날에 있을 심판은 (1) 전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 선포 (1:1-3), (2) 남 유다에 대한 심판 선포 (1:4-), (3) 만민을 향한 회개 촉구 (2:1-3), (4) 열방에 대한 심판 선포 (2:4-), 그리고 (5)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선포 (3:1-8). 또한 2) 여호와와 날에 있을 구원은 (1) 남은 자의 구원 예언 (3:9-13)과 (2)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 약속 (3:14-20).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과 구원이다.

## IV. 스바냐서의 주제

스바냐의 주제는 선지자 스바냐의 지속적인 설교에서 드러나듯이 여호와와 그의 날이다 (1:7). 이 다가오고 있는 날은 두 가지 국면을 보여준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그 하나이며 다른 하나는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위한 축복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심판과 찬양 모두에서 옳으신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 V. 스바냐는 왜 썼는가? 아래 세 가지 목적을 위해 썼다

- 1) 역사적 목적: 죄 때문에 유다와 주변국가들에게 임박한 멸망으로부터 유다를 경고하며 그들을 회개로 초대한다.
- 2) 교리적 목적: 스바냐는 하나님은 그의 거룩을 시행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한 심판은 옳은 것이다. 이에 관해서 선지자 스바냐는 여호와와 그의 날을 강조하였다 (1 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나라들에게 신실하실 것이다 (참고, 롬 10:13).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지키시며 한나라로서 그들을 모으심으로 이스라엘의 지위를 회복하실 것이다(3:20).
- 3) 기독교적 목적: 구주는 이스라엘에서 의로우신 주님으로 소개되었으며(3:5) 그 나라를 대적하는 증인이시며(3:8),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이시다(3:15).

## VI. 핵심 단어, 핵심 절, 핵심 장

- 1) 핵심 단어: 여호와와 그의 날의 구원
- 2) 핵심 요절: 1:14-15; 2:3; 3:17
- 3) 핵심 장 : 3 장

## VII. 스바냐의 신학

- 1) 기독교적 세계관의 요소들: 스바냐의 초점을 반역과 죄 그리고 언약과 구속의 세계관적 범주들이다. 유다의 백성들은 크게 범죄했으며 특별히 종교와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그 당사자들이었다. 하나님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될 생존하는 남은 자로 귀결된 것이다. 스바냐는 그의 시대에서 회복의 시기까지 장기간의 견해를 드러냈다.
- 2)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그의 백성에 대해 질투하신다. 여호와와 그의 날의 도래에서 그는 그에게 속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포함해서 폭력과 속임수의 삶으로 그를 대적한 모든 자에게 공의를 수행하실 것이다. 비록 그리스도와 성령의 오심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은 없으나 스바냐의 날에 관한 예언이 예수를 언급하는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와가 그들 가운데 계셨음을 알아야 했다(3:15).
- 3) 인간: 스바냐는 인류 가운데 실재하는 악에 대한 보편적 경향을 보여준다. 모든 종류의 사람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불레셋 사람들, 모압 사람들, 앗수르인들 그리고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대적한 죄 때문에 똑같이 정죄되었다. 고집, 압제 그리고 폭력은 어떤 개인이나 나라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여호와와 그의 날은 그들 모두를 대적하여 올 것이다(2:11).

- 4) 구원: 스바냐는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강조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그의 이해에는 이스라엘의 의로운 남은 자에게 하나님의 뛰어난 축복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언약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은 역시 땅의 모든 나라들이 그를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부르며 한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3:9) 신약성경은 이 진리를 표현하고 있다(계 21:24-26).

본 서의 가장 큰 특징은 '여호와와 그의 이름' 사상이다. 여호와와 그의 이름은 본서의 주요 메시지를 이루고 있으며 희생의 날(습 2:8)로서, 분노의 날, 고통의 날, 캄캄한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습 2:14)을 가리킨다. 그리고 본 서는 여호와와 그의 이름이 지니는 심판과 구원의 양면적 성격을 자세히 부각시키고 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거짓 예배에 있다. 즉 하나님을 무시하며, 더 나아가 그의 존재를 인정치 아니한 데 있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본 서의 특징으로는 건조하고 사실적인 문체를 들 수 있다. 수식어를 거의 사용하지 아니하고 운율성을 강조하지 않은 간결하고 사실적인 문체를 사용하고 있다.

#### VIII. 스바냐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 1) 임마누엘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2:3; 3:17)
- 2)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2:11; 3:9)
- 3) 성결케 하시는 그리스도 (3:9)
- 4) 심판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1:3,15)